

해외봉사단원 격려 다과회

개인뿐만 아니라 나라도 이웃을 함께 생각하면서 세계를 생각하며 살 때가 되었습니다

여러분 저는 약간 아쉽습니다. 계획된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 입니다. 처음 임종범씨와 정선희씨께서 말하는데 쫓겼습니다. 여러분 얼굴을 훑쳐봤더니 여러분도 쫓한지……. 이런 것을 감동적이라고 이럴 때 쓰는 것 같습니다. 우리 대한민국도 참 많이 컸다는 생각과 함께 자랑스럽다고 느꼈습니다. 지난날을 돌이켜보면 힘겹게, 너무 바쁘게 너무 자신만을 챙기며 살아왔습니다.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도 그런 것 같습니다. 이웃을 함께 생각하면서 세계를 생각하며 살 때가 되었습니다. 여러분이 그 몫을 해 낸다 생각하니 자랑스럽습니다.

지난번에 미국에 갔었습니다. 많은 사람 인사를 청하고 한국에 호의를 보였습니다. 6.25때 참전한 분들이 제일 쫓겼습니다. 그 다음 평화봉사단이 아주 자랑스럽게 인사를 했습니다. 참 부러웠습니다. 여러분도 먼 뒷날 그 얘기 할 수 있게 되고 그런 가운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나라와 나라 사이에 우의 돈독해지고 우리나라도 좋은 일이 될 것 같고 인류사회가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. 참 장합니다.

여러분도 참 많이 남은 일이라 생각됩니다. 군대 갈 때 가기 싫었습니다.

그 때 군의관이 신체검사를 하면서 떨시, 무시하는 것 같아서 도망을 갔습니다. 그래서 67년에 신체검사 받고 68년 군대에 갔습니다. 지나고 생각해 보니 군대생활 경험으로 제 자신 성숙하는데 큰 밑천이 되었습니다. 실제 성숙된 것 보다 어디 가서 자랑하고 과시하는데 3배쯤 도움이 되었습니다. 여러분에게도 참 많이 남겼다는 생각 듭니다. 마음이 넉넉하고 따뜻한 사람이라 생각하고 꿈이 대단히 옹골찬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. 말이야 그렇지만 가면 얼마나 고생하겠습니까.

아주 험한 곳을 자처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. 몸 건강하고 힘들더라고 보람차게 하고 다시 건강하게 돌아오시길 바랍니다. 여러분 자랑스럽습니다.